

우리 밥으로 나신 예수

Jesus Born to be Our Food

누가복음 2:6-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2월 4일 성찬식 설교

⁶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⁷말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⁸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⁹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¹⁰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¹¹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¹²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¹³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¹⁴“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¹⁵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¹⁶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¹⁷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¹⁸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¹⁹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식물을 내신 뜻

창세기 첫 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엿새 동안 지으셨다 했는데 잘 살펴보면 첫 사흘하고 뒤 사흘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사흘이 준비의 날이라면 둘째 사흘은 실행의 기간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위아래 물로 나누시고 중간에 하늘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마른 땅을 만드셨는데 창조 의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서 살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풀, 채소, 나무 같은 식물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땅을 만드신 셋째 날 식물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아니고 셋째 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물은 실행이 아니고 준비 단계에 속합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에서 살 동물은 맨땅만 갖고는 안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실 때 그 땅에서 살아갈 동물과 사람이 먹을 음식도 함께 만드신 겁니다. 여섯째 날 보면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다음 사람에게는 씨 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시고 새와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동물 가운데서 육식을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도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은 처음부터 먹이가 위해 세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힘이 약한 양 같은 동물이 사자나 늑대 밥이 되는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먹이가 되려고 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식물은 다릅니다. 풀이든 채소든 과일나무든 식물은 처음부터 먹이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식물은 먹히려고 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식물은 먹힘으로써,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람의 음식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이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이 많이 보입니다. 등장인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아기 예수가 가운데 누워 계시고 그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같이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도 몇 사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다. 더는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베들레헴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데도 왜 아무도 안 와 봤을까요? 미안해서 못 왔겠지요. 산모한테 방도 하나 못 내줄 정도로 야박하게 굴어놓고 무슨 염치로 아이를 보러 오겠습니까?

거기 동물이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는지 혹 아십니까? 다 나오면 네 가지입니다. 동방 박사가 같이 있는 경우 낙타도 보이고, 목자들이 등장하면 양도 같이 나오지요. 박사나 목자가 없이 아기 예수 식구만 나오는 경우에도 동물은 있습니다. 주로 소 아니면 말입니다. 이런 동물은 왜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낱말 하나 때문입니다. “구유”라는 말입니다.

다. 구유는 가축에게 먹이를 줄 때 쓰는 그릇입니다. 가축의 밥그릇이지요. 가축이라면 소, 양, 말, 나귀 그런 것일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소 아니면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도 외양간 아니면 마구간이 되었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밥그릇입니다. 야생동물은 들에 있는 풀을 그대로 먹지만 가축은 사람이 가져다 준 풀을 먹는데 생풀을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조금 요리를 한 여물을 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먹는 건 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동물한테 먹으라 하신 바로 그겁니다. 구유에 놓인 풀은 생풀이든 요리를 한 풀이든 처음부터 먹이가 되려고 세상에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 풀이 놓이는 그 자리에 아기 예수께서 누우셨습니다.

야박한 인심?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여관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말이 본문에 처음 나올 때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방이 없었으니 방 아닌 곳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거기가 그냥 바깥이든 아니면 마구간 외양간이든 아기를 누일만한 적당한 게 없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구유를 썼을 것입니다.

주님이 누우신 그 구유는 주님이 나실 때의 세상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또 있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산모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최대한의 보호와 편의를 베푸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나실 때는 그런 도움도 못 받았습니다. 호적 때문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들이 잘 방까지 내주지는 못했습니다.

도움도 나를 죽여 가면서까지 베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가 보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많이들 양보합니다. 일어서서 가야 몇 시간을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에 밤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옆에 서 계셔도 양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밤기차를 타면 대개 잠을 자게 마련인데 양보하면 몇 시간을 서서 가야 되고 잠도 못 잡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서 남에게 양보는 못 합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인심을 너무 타박할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게 된 세상 형편을 탓하는 게 더 나을 지도 모릅니다.

표적이니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구유에 누워야만 했던 현실도 무시할 건 아니지만 구유에 누우신 참 뜻은 따로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에게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거다” 했습니다. 강보에 싸인 건 조금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그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보호합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운 건 이상합니다. 구유가 뭐 하는 곳인지 목자라면 다 압니다. 양도 구유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더럽겠지요? 역한 냄새도 날 겁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볼 거라 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 아기가 너희 구원자라 했습니다.

구원자라면 힘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갓난아기입니다. 게다가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만 납니까? 구유는 가축이 먹는 여물을 담는 곳입니다. 거기 누웠다면 짐승이 먹을 밥이라는 말 아닙니까? 모두 살려고 세상에 나는데 이 아이는 죽으려고 났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표적입니다. 표적은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숨은 뜻, 곧 더 깊은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사인이라 합니다. 교통신호가 다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붉은색 불이지만 뜻은 거기 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갓난아기 하나가 누워 있는 거지만 그 뜻은 그 갓난아기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밥이 되어 하십니다. 구유에 담긴 풀을 먹고 짐승이 사는 것처럼 거기 누우신 아기를 먹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분이기에 구원자가 나셨다 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이 아기가 자라신 다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6:35). 아기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음식으로 오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56-57).

우리가 오늘 하는 성찬식이 바로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를 살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짐승 밥그릇인 구유에 누우신 주님이,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주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실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됩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는 표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는 성찬식도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주님의 살과 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이 떡 아무리 먹고 포도주 아무리 마셔도 못 삽니다. 칼로리가 있으니 몸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찬이 표적인 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밥 먹고 물 마셔 우리가 삽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물을 마셔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나시자마자 구유에 누우신 주 예수께서 내 밥이 되어 주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분을 구주로 믿은 나는 한 것도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먹고 마십니다.

은혜와 보답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실 때 이것들은 먹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땅에 꼭 붙어 있게 하셨습니다.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어서 움직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꼼짝도 못 하는 가운데 동물이 와서 먹고 사람이 와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식물을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동물도 또 사람도 오늘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먹이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갓난아기가 누울 자리를 어찌 정하겠습니까 마는 주님은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목을 방 내 놓는 불편함도 감수하기 싫었지만 주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성찬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 봅시다. 얼마든지 안 하실 수 있는 일을 오직 우리를 위해 일부러 해 주셨습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이 귀한 성찬에 임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사랑에 걸맞은 삶을 살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밥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놓기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얼 내놓아야 되겠는지 그것도 생각하며 성찬에 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